

# 한·중 FTA, 체결에서 이행까지





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15일 자유무역  
협정을 체결, 중국시장을 **우리의 제2 내수시장**  
으로 선점하였습니다.

\* 중국 본토(mainland)와 별도 관세영역인 홍콩, 마카오 등에는 한·중 FTA가  
적용되지 않음



### <양허품목 비중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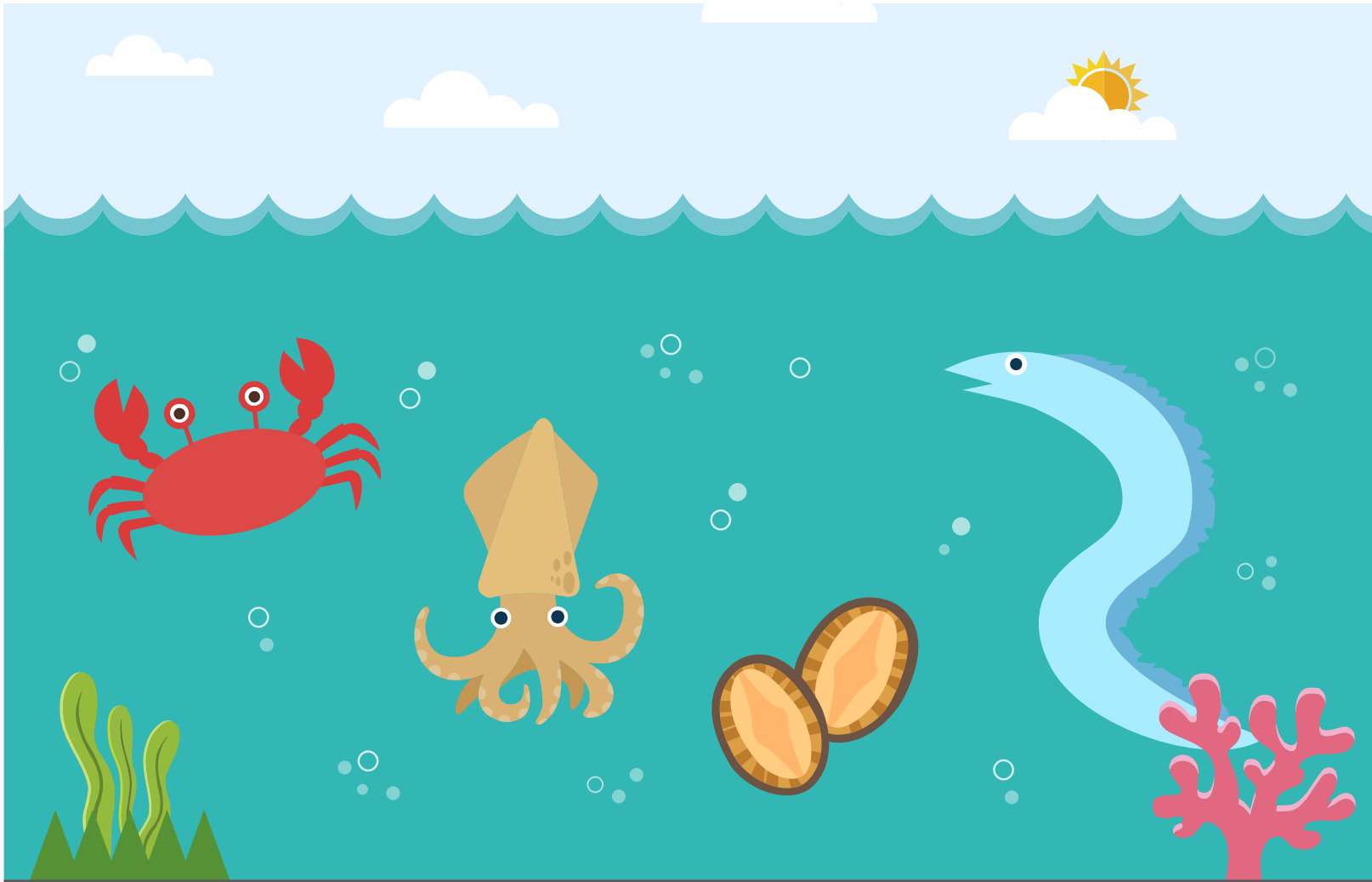


18.5%	즉시철폐	1.1%
4.5%	5년 철폐	14.9%
66.4%	10년 철폐	1.9%
8.6%	15년 철폐	35.9%
1.2%	20년 철폐	32.3%
-	TRQ 부분감축	3.6%
0.9%	양허제외	10.2%

특히, 중국 수산물 시장은 **99% 개방(품목수기준)**되어 우리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
반면에, 주요 중국 수산물 대부분이 개방에서 제외되어 (초민감품목군) 국내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.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

오징어, 넙치, 멸치, 갈치, 김, 고등어, 꽃게, 전복,  
조기 등 **국내 20대 생식품목(전체 생산액의  
85%)**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.



불법조업 대상품목, 조정관세품목, 자원관리 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**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위주로 양허제외하였습니다.**



이미 수입이 많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 **민감성이 인정되어 일부 물량** 제한을 설정하여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위주로 **TRQ** 설정하였습니다.

굴, 대구, 미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고관세 품목(20%위주 고관세)을 대상으로 **관세의 제한적 감축**(감축폭 2%p이내)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하였습니다.



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**자유무역협정 7년차**에 접어들었으며, 한·중 FTA 발효 후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발효 전에 비해 20.5% 증가하였습니다.



한·중 FTA 발효 전인 2013년부터 2015년  
까지의 평균 수산물 교역액은 14.1억 달러였으며,  
**발효 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수산물  
교역액은 17.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**

## <한·중 FTA 발효전·후 수산물 교역 현황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분		교역규모	수입	수출	무역수지
발효전('13-'15)		1,417	1,088	329	△759
발효후	2016년(2년차)	1,579	1,205	374	△832
	2017년(3년차)	1,587	1,216	371	△844
	2018년(4년차)	1,869	1,480	389	△1,091
	2019년(5년차)	1,828	1,307	521	△786
	2020년(6년차)	1,669	1,228	441	△787
	평균('16-'20)	1,707	1,287	419	△868
증감률	발효전 대비	20.5%	18.3%	27.6%	14.3%
	연평균 증감률('16-'20)	1.4%	0.5%	4.1%	△1.4%

무역수지 적자폭은 발효 전 대비 14.3% 증가하였으나, 연평균 1.4%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